

프로야구, 5월5일 무관중 개막한다...144경기 유지

울스타전 취소·준PO2선승제로 축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3주 리그 중단 정규시즌 11월 2일 마무리·28일 KS 종료

프로야구가 5월5일 어린이날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캄코양재타워에서 2020년 KBO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규시즌 개막에 대한 논의했다. 이사회는 2020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5월5일로 확정하고 개막 초반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본 뒤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 거행 예정이었던 울스타전은 취소하고,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수를 줄일 수도 있다.

오픈은 3선승제에서 2선승제로 축소했다. 경기 수는 구단 당 144경기를 유지하고 시즌 중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가 중단될 경우 경기 수를 단계 별로 축소할 계획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이사회 종료 후 "확진자가 나올 경우 3주간 리그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3주 중단이면 팀 당 18경기를 못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월1일도 유력한 개막일로 꼽혔다. 이날 시작되는 시범경기 성격의 팀 간 연습경기가 27일 마무리되기 때문. 통상 시범경기 종료 후 곧장 정규시즌이 시작된다는 점, 일정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5월

일보다 5월1일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KBO 이사회는 5월5일을 개막일로 확정된 뒤 연습경기를 팀 당 3경기씩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선수들의 실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개막을 위한 준비 기간은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류대환 총장은 "5월5일에 개막하고 11월28일이면 한국시리즈까지 마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성급하게 개막하기보다 좀 더 안정성을 체크한 뒤 개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5월1일이 아닌 5월5일로 개막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144경기 체제로 시즌을 시작하지만 경기 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선수단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주간 리그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 류대환 총장은 "144경기로 시작하고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경기 수를 줄여나가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빼놓을 수 없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천 취소 경기가 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비롯한 10개 프로야구단 사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캄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기된 시즌 개막 및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하면 더블헤더(7,8월 제외) 및 월요일 경기를 거행하기로 했다.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 시에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으며, 더블헤더 때는

엔트리를 1명 추가한다. 또한 2연전 시작부터 확대 엔트리(5명)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5월5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정규시즌은 11월2일 마

무리된다. 포스트시즌은 11월4일 시작되고, 11월28일 한국시리즈가 마무리된다. 준플레이오프 이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수를 줄일 수도 있다.

‘한전맨’ 박철우 “V리그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릴 것”

한국 최고 라이트로 손꼽혀...“10년 간 함께했던 삼성 팬들에게 감사”

올 시즌 프로배구 남녀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이적이었다. 영원한 ‘삼성맨’ 일 것 같았던 박철우(35)가 삼성화재를 떠나 한국전력으로 이적했다. 박철우조차도 “아직 한전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어색하다”고 했다. 2019-20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한전은 박철우를 데려오면서 단숨에 중위권으로 뛰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철우는 “V리그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연봉 5억5000만원과 옵션 1억5000만원, 계약기간 3년 조건으로 박철우와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국 최고의 라이트로 꼽히는 박철우지만 30대 중반을 지난 나이에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한 결정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20일 뉴스1과 전화가 닿은 박철우는 “아직 어벙벙하다”라며 “(이적을 할 것이라고)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걱정도 앞서고 설레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철우의 이적은 한전의 적극적인 오피 덕분이었다. 구단에서 지난 16일 연락을 한 뒤 협상이 진행됐고, 17일 계약서에 사인했다. 한전은 박철우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었고, 박철우도 고민 끝에 새 팀으로의 이적을 결심했다. 그는 “주변에서 내가 한전에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연락이 왔었

다”고 돌아본 뒤 “처음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다. 워낙 적극적인 오피였고, 길게 끌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철우는 2009년 현대캐피탈에서 삼성화재로 이적한 뒤 팀에서 주장을 맡는 등 배구명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2009년 이적 당시 현재 와이프인 신혜인씨의 부친인 신치용 전 감독(현 인천선수촌장)의 오피를 받아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박철우는 “장인 어른께서 삼성에서 20년, 저도 10년을 있었다”라며 “좋았던 기억도 많고, 힘들 때도 있었다. 와이프가 이적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울더라.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장인과 상의를 드렸는데, ‘다른 것 생각 말고 프로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이 좋은 것이다. 선수로서 마지막 FA기 때문에 너 자신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결정하기가 편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일 처음 팀에 합류해 인사를 한 박철우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박철우는 아쉽게 작별하게 된 삼성화재 팬들과 새롭게 만날 한전 팬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삼성화재 팬들을 향해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기억이 많았다. 항상 같이 해주

서 감사 드린다”면서 “끝까지 함께하진 못했지만 선수로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팬들에게는 “새 팀에 가서도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한전 팬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철우의 합류로 한전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됐다.

박철우는 “주변에서 ‘V리그가 재미있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칭찬이라 생각한다”고 웃은 뒤 “꼭 팬들이 원하는 대로 V리그를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자농구 ‘FA 최대어’ 박혜진

우리은행과 2024년까지 계약

아산 우리은행, 김정은·홍보람과도 도장 찍어

여자프로농구 ‘FA 최대어’ 박혜진이 원소속팀 아산 우리은행 잔류를 확정했다. 아산 우리은행은 21일 박혜진과 4년간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혜진은 2008년 우리은행에서 데뷔한 이래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4년까지 15년간 우리은행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박혜진은 올 시즌 27경기에 출전, 평균 14.7득점 5.1리바운드 5.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정규리그 MVP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우리은행은 “박혜진 선수는 12시즌 동안 6년 연속 통합우승과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주역”이라며 “이번 FA 계약은 그동안 구단과 감독, 선수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혜진은 “신인 시절부터 함께 한 우리은행에서 다시 될 기회를 배려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혜진은 “신인 시절부터 함께 한 우리은행에서 다시 될 기회를 배려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혜진은 “신인 시절부터 함께 한 우리은행에서 다시 될 기회를 배려로 이루어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산 우리은행 박혜진(왼쪽)이 팀 동료 김정은과 기뻐하고 있다. FA 최대어로 끝낸 박혜진은 우리은행 잔류를 선택했다.

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국 여자프로농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팀 내 또 다른 FA 대상자였던 김정은, 홍보람과도 재계약에 성공하며 전력 유출 없이 다가오는 2020-21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